“힘들 때 와라” 청년 포교는 이 말부터

지역 불교人 화엄사 빛고을포교원 주지 연성 스님

남부대 · 호남대 불교학생회 지도
청년들과 신뢰 쌓으며 친교 우선
불교 스며들도록 유도하며 전법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청년 포교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는 여전히 답을 찾기 어렵다.

광주에서도 불교세가 가장 약한 지역으로 꼽히는 광산구 하남동에 문을 연 화엄사 빛고을포교원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실천적 응답이다.

개원 4주년을 맞은 빛고을포교원을 이끌고 있는 주지 연성 스님은 “청년 포교는 기약 없는 투자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해야 할 불교의 길”이라고 강조한다.

연성 스님은 오늘날 청년 포교를 ‘시기의 문제’로 바라본다. 스님은 “불교 교리는 ‘삶은 고통이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데, 그 고통을 가장 처음으로 실감하는 시기가 바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이라며 “입시와 진로, 사회 진출을 앞둔 이 시기에 불교가 삶을 해석하는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종교 활동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시대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이 시기의 만남이 오래 가는 인연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남부대·호남대 등의 불교학생회를 지도해 온 스님은 청년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친해지는 시간’을 꼽았다. 스님은 “요즘 청년들은 공짜로 무언가를 받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교리나 경전을 앞세우기보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법회와 만남을 이어가며 1~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진짜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스님의 경험이다.

연성 스님은 “지금은 좋은 말을 많이 해주기보다 ‘힘들 때 스님에게 와도 된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하는 시기”라며 “대화 속에서 불교의 사고방식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처럼 경전 공부 중심의 방식은 오히려 거리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연성 스님은 빛고을포교원이 ‘대중의 곁으로 다가간 도량’이라고 설명한다. 화엄사가 오랜 시간 광주 포교당의 필요성을 고민해 온 끝에 문을 연 곳이다. 특히 터를 정할 당시 은사이자 화엄사 주지였던 덕문 스님은 “주변에 사찰이 없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 동네여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고 한다. 스님은 “서로 신도를 빼앗는 구조가 아니라 불교가 처음 닿는 공간이 되길 바랐던 뜻”이라며 “이곳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오히려 마음이 지친 이들이 조용히 부처님을 만나고 돌아가기에는 적당한 거리”라고 말했다.


화엄사 빛고을포교원 주지 연성 스님은 광주 남부대 · 호남대 불교동아리 지도법사를 맡아 지역 청년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개원 후 4년을 돌아보며 연성 스님은 “인생에서 가장 빠르게 지나간 시간이자, 가장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라고 회고했다.

첫 주지 소임을 맡아 숱한 슬럼프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만큼 수행자로서 한 단계 성숙해졌다는 것이다. 다만 포교원 자체의 성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스님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남아 있고,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연성 스님은 ‘행동하는 불교’를 강조했다. 청년과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봉사단을 꾸려, 사회 속에서 불교가 실천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다. 스님은 “여건이 쉽지는 않지만 청년 포교와 지역 포교가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싶다”며 “이 도량을 찾는 사람만큼은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말했다.

호국불교 50년을 이어낸 “용인불교 상징 도량”

호국선봉사 창건 50주년 법회
12월 14일 김윤후 승장 추모도

호국불교 전통을 계승해 온 호국선봉사가 창건 50주년을 맞아 지난 반세기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발원했다.

용인 호국선봉사는 12월 14일 ‘창건 50주년 기념법회 및 김윤후 승장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자광 대종사와 동도사 주지 도원 스님을 비롯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주성운 제3지상작전사령관, 이언주·이상식 국회의원, 정하용 경기도의원, 이교우 용인시의원, 최영철 용인문화원장, 현태주 용인불교신도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호국불교의 의미를 함께 되새겼다.


용인 호국선봉사는 12월 14일 ‘창건 50주년 기념법회 및 김윤후 승장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사진은 기념촬영 모습.

김윤후 승장 추모다례재는 자광 스님과 호국선봉사 주지 정행 법사의 헌다와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내빈 및 선봉사 신도단체장들의 헌화로 진행됐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처인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윤후 스님의 호국정신을 기렸다.

이어진 창건 50주년 기념법회에서는 선봉사의 지난 50년과 미래 비전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축사에 나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이언주·이상식 국회의원, 최영철 용인문화원장은 호국선봉사가 군과 지역사회, 불교계를 잇는 중심 도량으로 수행해 온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자광 스님은 축하 법문을 통해 호국선봉사와의 인연을 회고하며 참석 대중에게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스님은 “세상에는 참 좋은 사람과 아주 좋은 사람, 그리고 좋은 사람이 있다. 참 좋은 사람은 부처님이고, 아주 좋은 사람은 보살님”이라며 “여러분은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 아주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봉사에서 맺은 인연은 모두 아주 좋은 인연이었고, 앞으로도 그런 인연이 계속 이어져 선봉사가 용인불교의 상징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발원문 낭독과 선봉사 어린이회의 꽃공양이 이어져 호국불교의 정신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또 주지 정행 법사는 자광 스님에게 기념 선물을, 주성운 제3지상작전사령관은 부대를 찾아준 자광 스님에게 기념패를 전해 훈훈함을 더했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청소년 장학금 전달

천곡중·호계고에 각 300만원
20여 신행단체 송년 윷놀이도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지원장 혜안 스님)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했다.

울산지원은 12월 14일 대웅전에서 청소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 및 송년 윷놀이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지원장 혜안 스님과 총무 혜자 스님, 재무 혜담 스님, 허정식 호계고등학교 교장, 김은미 천곡중학교 교무부장, 천주현 신도회장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울산지원은 천곡중학교와 호계고등학교에 장학금 각 3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장학금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은 인사말에서 “학생들을 위한 소중한 장학금을 마련하게 된 데 큰스님과 십시일반 마음을 내 준 신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근본이다. 청소년들에게 정성과 관심이라는 물을 계속 주어야 훗날 꽃을 피우고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며 “그 결실은 두부와 된장처럼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나누는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윷놀이대회는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교사직무연수 수련회

12월 13~14일 연수 수료생 대상
“교사 마음 회복 프로그램 지속”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지원장 혜연 스님)은 12월 13~14일 교사직무연수 수료생을 대상으로 특별 수련회를 개최했다.

수련회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인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푸르게 살 수 있다’를 주제로, 교사들이 일상과 교육 현장에서 흔들리기 쉬운 마음을 점검하고 자신의 근본인 ‘주인공’ 마음자리를 재확인하도록 돕는 실참 중심 수행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첫날에는 ‘수련회를 열며’ 시간을 통해 수행의 방향을 정한 뒤 울력으로 몸과 마음을 함께 쓰는 공생 실천 수행을 이어갔다. 이어 사경 수행에서는 대행 선사 법어집 구절을 한 획 한 획 마음을 모아 쓰고, 각자 느낀 변화와 원력을 나누는 대화의 시간이 마련됐다.

둘째 날에는 새벽 예불로 하루를 열고 해맞이 ‘선(禪)책’을 통해 걷는 수행으로 마음의 흐름을 살폈다. 또 ‘주인공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프로그램에서는 교사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질문을 수행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경험을 나눴다.

지원장 혜연 스님은 “교사들이 자신과 타인을 살피는 마음의 힘을 회복해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사들을 위한 수행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익산 불교계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12월 14일 익산불교신도聯 주최



익산불교신도연합회(회장 이후범)가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익산불교신도연합회는 12월 14일 익산불교사암연합회(회장 일행 스님)의 후원으로 익산 궁 웨딩홀 그랜드 홀에서 ‘익산불교인의 밤’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전북불교회관 회주 평상 스님,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 태봉사 주지 영산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헌율 익산시장, 김경진 익산시의장, 안수빈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이원택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2036 하계올림픽 전북개최를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올림픽 유치를 기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여수 향일암, 자비나눔 김장 축제 성료

12월 9일 보문복지회 함께



추운 겨울, 사찰과 기업, 시민이 한마음으로 이웃을 향한 따뜻한 손길을 모아 김장김치를 나눴다.

여수 향일암과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이사장 연규 스님, 향일암 주지)는 12월 9일 ‘2025 자비나눔 김장 축제’를 열고 지역 소외계층에게 사랑의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여수 하얀연꽃 앞마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보문복지회 산하 20개 시설 종사자와 향일암 신도 등 150여 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김장김치 1250박스(총 1만2500kg, 약 5200만 원 상당)를 관내 독거어르신 및 사회복지시설에 후원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연규 스님은 “여수 시민 모두가 하나 되고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따뜻한 공동체의 힘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개심사지 오층석탑 국보 승격 축하”

예천불교총연합회 · 직지사, 송년법회 봉행



예천불교총연합회(회장 도문 스님)와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주지 장명 스님)는 12월 13일 신도시 스텐포드호텔에서 ‘개심사지 오층석탑 극보승격 기념-을사년 송년법회 및 예천 불자의 밤’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개심사지 오층석탑’ 국보 승격을 사부대중이 함께 축하하고, 예천 불교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예천불교총연합회장 도문 스님과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 예천불교사암연합회장 현종 스님, 직지사 회주 법성 대종사, 원로의원 법등 대종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도문 스님은 “오층석탑의 국보 승격이 단지 문화유산의 승격에 그치지 않고, 지역 수행 공동체의 원력과 수행 정신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양산 금천암, ‘수행도량’ 개원법회

성화 스님 “수행·기도도량으로”



양산 금천암(주지 성화 스님)이 3개월 간의 불사를 마무리하고 12월 13일 수행도량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금천암 대웅전에서 열린 개원법회에는 주지 성화 스님을 비롯해 시드니정법사 무구 기후 대종사, 전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의성 대곡사 혜산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도솔암 원봉 스님, 구미 남화사 정화 스님과 김종길 신도회장, 김희철 남화사 신도회장, 김윤희 맑은소리 맑은나라 대표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주지 성화 스님은 “지난 10월 2일 주지 소임을 맡아 본격적으로 도량 정비를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 참선과 기도, 경전 공부가 함께 어우러지는 열린 수행도량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동국대 생활풍수 총동문회, 송년회 개최

12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서



동국대 행정대학원 생활풍수CEO 과정 총동문회(이하 동풍 총동문회)가 12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에서 ‘2025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송년회에는 동풍 총동문회 선·후배와 현장교수, 자문위원, 연구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총동문회장 도심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풍수지리는 화장문화 확산 등으로 사회적 인식과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연구와 노력을 통해 인테리어 풍수 등 생활 풍수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